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직렬다중매개효과*

최려나** · 노충래***

I 알기 쉬운 개요

다문화 청소년은 이중문화가 공존하는 가정과 사회에서 상이한 풍습과 가치관을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환경과 이들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은 다문화 청소년에게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이는 청소년기 긍정적인 내적 자원인 자아탄력성과 주요 외부 환경인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이후 성인기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거쳐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 청소년이 인지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을 감소시키고, 이는 다시 학교적응력을 낮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개입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본 연구는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20)을 수정·보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drno@ewha.ac.kr

투 고 일 / 2022. 6. 6.

심 사 일 / 2022. 8. 5.

심사완료일 / 2022. 8. 17.

DOI/10.14816/sky.2022.33.4.59

I 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복지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1기 데이터(MAPS 1)」의 4차년도 자료에서 중학교 1학년생 총 1,325명(남학생 648명, 여학생 677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적응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직렬다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이 삶의 만족도 향상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직접 개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향상이 삶의 만족도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삶의 만족도,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1기

I. 서 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며, 다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로 24세 이하인 자다.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2021년 총 160,056명으로 전년(147,378명)보다 12,678명(8.6%)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학생 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 다문화가정 학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76.3%(122,09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가정 자녀 17.8%(28,536명), 중도입국 국제결혼가정 자녀 5.9%(9,427명) 순으로 나타났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대처를 비롯하여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되는 시기는 청소년이 급격한 신체 발달과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정체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시기이다. 또한, 발달 특성상 학교와 학업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분리·개별화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또래, 교사, 이웃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어(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 사회적 역할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역할변화는 주변인과의 갈등과 자아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자기통제력이 약하며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으로 인한 혼란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가출, 학업 스트레스,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행복 지수 국제 비교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이 자기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6.5%로 OECD 국가 22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염유식, 성기호, 2021). 이는 대한민국 어린이·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질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김은혜, Cui Lina, 노충래, 2019).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다수가 국내에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성장해왔기에 일반 청소년과 유사한 발달과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들은 외국 출신 부모의 존재라는 특성에서 오는 조건, 가족 역동, 차별화된 사회적 시선과 같은 특수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평화, 2019). 이들은 부모 사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충돌을 직접 목격하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이종우, 2011), ‘문화적응’이라는 주요한 과업을 마주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를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은 이중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에서 부모의 서로 다른 풍습과 가치관을 경험하며,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에도 일반청소년과는 다른

경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소년기에 동반하는 역할 갈등 및 자기정체감 형성 등의 문제와 이로 인한 심리적 취약성이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맞물리면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는데(강화, 배은경, 2018),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리·사회적 적응을 방해한다(김순규, 2011). 이렇듯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새로운 삶의 장에서 적응해가는 이주민과 그 가족 구성원의 삶에 대한 만족 및 심리적인 건강과 직결된다(Berry, Kim, Minde & Mok, 1987). 청소년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이후 성인기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Lyons, Huebner, Hills & Hom, 2013),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김영민, 임영식, 2013),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개인 내적 자원으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 있다. 자아탄력성은 역경이나 위험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며(Block & Block, 2014), 특히 환경에 적합하고 알맞은 조절전략을 구사하여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청소년의 삶에 대한 행복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다(김영민, 임영식, 2013).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주변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도가 높고(유안진, 이점숙, 이정민, 2005), 행복감이 높다(김연화, 2010). 한편, 학교는 청소년기에 있어 단순히 지식 학습의 장이 아닌 새로운 사회환경 속에서 타인과 어울리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장이다(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특히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의 가족 중심적 관계를 벗어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학교는 매우 의미있는 장이며, 학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은 이후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대해 논의할 때 학교적응은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개인의 심리·내적 체계와 함께 청소년기 주요 사회체계인 학교 체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내적 자원인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학교적응을 거쳐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Pearlin 등(1981)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The Stress Process Model: SPM)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개념적 틀 안에서 각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문화 청소년복지 지원 및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은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은 직렬다중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스트레스 과정 모델(The Stress Process Model: SPM)

스트레스 과정 모델(SPM)은 스트레스 원(stressors)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논하고 있어(Pearlin, 1999)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즉,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현상을 스트레스 원, 중재요인, 결과요인, 상황·배경적 맥락요인으로 설명한다. 이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단순한 관계를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스트레스 전 과정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는 모델(김희정, 2000)로써 의의가 있다.

이를 다문화 청소년의 상황에 적용해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은 문화적응의 과제와 이들이 처한 소수자의 지위라고 할 수 있으며(은선민, 이수현, 이강이, 2019),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나타나게 된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원은 심리·사회적 자원에 의해 중재될 수 있는데(중재요인), 이는 동일한 스트레스 조건하에서도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고려된 것으로, 스트레스 원과 결과요인 사이에서 영향을 주는 일종의 자원으로 기능한다. 최근 독립변수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매개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장선아, 고정훈, 2021), 임파워먼트(곽미정, 구성숙, 김형모, 2015), 자아정체감(김은경, 김종남, 2016), 이중문화역량(진은영, 2015)과 같은 심리·사회적 자원이 고려되고 있다. 이들 요인은 스트레스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우울 및 불안, 생활 갈등, 삶의 질, 사회적응력, 심리·사회적응과 같은 스트레스 결과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미정 외, 2015; 김은경, 김종남, 2016; 장선아, 고정훈, 2021; 진은영, 2015). 마지막으로 상황·배경적 맥락요인은 스트레스 발생 과정 전반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 직업, 경제적 수준,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요인은 실제 분석에서는 주로 다른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통제의 역할을 수행한다(Pearlin, Mullan, Semple & Skaff, 1990).

이처럼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 과정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김희정, 2000; 진혜민, 배성우, 2016).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궤적을 유형화하거나(은선민, 이수현, 이강이, 2019),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거나 억제하는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활용된 바 있다(한광현, 강상경, 2019). 궁극적으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스트레스 원, 중재요인, 결과요인, 상황·배경적 맥락요인을 기본 요소로 하는 모델로서 스트레스 원인과 결과 사이의 단순한 관계가 아닌 스트레스 원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떠한 결과에 이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원으로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매개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그리고 결과요인으로서 삶의 만족도를 설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기 삶의 여러 영역에 대한 만족감을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까지의 자기 삶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를 말한다(Fujita & Diener, 2005). 청소년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는 정서 및 사회적 행동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Proctor, Linley & Maltby, 2009),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일상의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함(McKnight, Huebner & Suldo, 2002)과 동시에 성인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김평화, 2019). 조형정과 윤지영(2015)은 청소년의 자존감, 건강, 의사소통 능력, 성적 등 내적 요인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보다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자아개념과 과잉행동 등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가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주희, 남지숙, 2010; 서진희, 2012).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에서 부모의 서로 다른 풍습과 가치관을 경험하고 학령기에 따라 새롭게 접하게 되는 환경에서의 적응에 있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외국 출신 부모의 존재라는 특성에서 오는 조건, 가족 역동, 차별화된 사회적 시선과 같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김평화, 2019).

문화적응은 서로 다른 문화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개인의 성격과 행동이 변하는 것이다(서은주, 2021). 누구나 상이한 문화에 처음 접했을 때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고

일시적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라고 한다(Berry et al., 1987). 이주자 대부분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de Snyder, V. N. S, 1987), 이러한 스트레스가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적을 때 그것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문화적응 및 정착 단계에서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갈등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해쳐 균형을 잃게 할 수 있고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Kiang & Fuligni, 2009). 그러나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게 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심리적·사회적 병리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것에는 개인, 집단, 그리고 새롭게 정착하는 사회의 특징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Berry et al., 1987). 이처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새로운 삶의 장에서 일궈지는 이주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및 심리적 건강과 직결된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부모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충돌을 직접 겪게 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문화적응이라는 주요한 과업을 마주하며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가족 구성원이 속한 사회문화적 가치와 주류사회의 문화적 규범 및 관습은 이질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발한다(Ward & Kennedy, 1993). 중도입국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갑작스레 바뀐 환경으로 인해 정체감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무력감을 가지기도 하며 서툰 언어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포함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철, 송다영, 2011). 반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여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한국인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이 마주하는 경험은 부모 세대와 대체로 다르며 부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도 있다(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6). 이들은 평범한 일상에서 의도치 않게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차별받게 될까 걱정하고, 주변으로부터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며, 흥밋거리나 함부로 다루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을 넘어서 따돌림과 같은 차별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민, 양난미, 이아라, 2021). 또한, 성인 부모가 경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 자녀에게 전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도 청소년에게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발현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노충래, 2000).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기유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수연(2009)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 스포츠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솔잎, 김유식, 심상신, 2013), 김민주와 윤기봉(2018)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를 낮추게 한다고 보고되었다(이지연, 그레이스정, 2016).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3.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김영민, 임영식, 2013),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으로서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역경이나 위험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며(Block & Block, 2014), 특히 환경에 적합한 조절전략을 구사하도록 하여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높임으로써 청소년의 삶에 대한 행복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논의된다(김영민, 임영식, 2013). 나아가, 청소년기에 겪는 발달상의 스트레스 및 위기상황을 이겨내는 자원이 되어 이들이 직면하는 일상 속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고 긍정적인 발달로 이끌어간다(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 저항력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대처능력을 발휘하여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문제해결 능력, 자기통제력, 자존감이 높고, 목적의식과 분명한 기대 수준을 보유하고 새로운 경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아탄력성이 낮은 청소년보다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더불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강명희, 이수연, 2013)과 삶의 만족도(김영민, 임영식, 2013)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의 자아탄력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사춘기라는 발달 단계적 특성과 더불어 심리·사회적으로 이중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자아탄력성은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와 자아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은 행복도(김연화, 2010), 삶의 만족도(김경민, 2010)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변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지닌 이들이 낙천적이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이다(유안진 외, 2005). 이처럼 청소년의 높은 자아탄력성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 통찰을 이끌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소영, 윤기봉, 2016).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도 다수 발견되었다.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유영아, 김은하, 김성수, 2018), 결혼이민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이은희, 옥경희, 2012)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박동진, 2019)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적응능력이라고 볼 때, 다문화 청소년 또한 개인의 내적 능력인 자아탄력성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스트레스에 대처해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4.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가족 중심적 관계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교사 및 또래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학교는 의미 있는 장이며, 학교 환경에서 또래, 교사 등 유의미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후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을 논의할 때 학교적응은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적응은 학업성취도와 더불어 학교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학교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줄이게 한다(Negru & Baban, 2009).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고 학교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얻어 바람직한 정서 및 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민하영, 권기남, 2004). 또한,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학교에서 맺는 또래와의 관계가 방과 후에도 멈추지 않고 연장된다는 점에서 학교 환경에서의 적응 및 만족감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으로 확장된다(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 적응 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중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성보, 이현철, 김경식, 2011). 한편,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박희훈, 오성배, 2014) 이로 인해 학년을 거듭하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증가한다(류방란, 김경애, 이재분, 송혜정, 강일국, 2012). ‘서울시 다문화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초·중·고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44%(초등학교 1.67%, 중학교 2.01%, 고등학교 0.97%)로 전체 중학생(1.04%)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다문화 학생의 62%만이 수업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교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은 학교공부(44.1%), 교우관계(9.2%), 숙제

(6.9%) 순으로 응답하였다(이혜숙, 박미현, 2016). 학교에서의 적응이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의 주요 지표이자(유안진 외, 2004) 추후의 적응을 지속적으로 예측하며(Wentzel, 2003)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교적응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결과로서 탐색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나, 최근 전학 초등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김사다, 조봉환, 박미진, 2017). 이를 통해 학교적응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적응은 다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는 스트레스 원과 결과 사이에 영향을 주고 받는 중재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김사다, 조봉환, 박미진, 2017; 유영아, 김은하, 김성수, 2018)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심리 및 사회적 중재요인으로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학교수업 참여, 규칙 준수,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요구를 조절하고 긍정적인 행동이 요구된다(허은주, 오인수, 2014). 이때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학교적응을 높인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었다(김애경, 김성봉, 2018). 홍진승과 이영선(2021)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향상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근거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삶의 만족도가 일련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이 직렬다중매개효과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인으로는 성별, 거주지역과 모 학력이 대표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김기년, 탁진국, 2018),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도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유조안 외, 2021), 부모의 학력이 높은 경우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보라,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거주지역과 모 학력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고, 각 변인 간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학교적응과 같은 심리·사회적 자원이 중재요인으로, 성별, 거주지역, 모학력이 상황·배경적 맥락요인으로 스트레스 발생 과정 전반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과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심리·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과 청소년기 주요 외부요인인 학교적응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직렬다중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이하 MAPS)」 1기의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다문화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년도(2014년) 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중학교 입학과 적응이라는 새로운 발달과업에 직면해야 하는 학령전환기인 중학교 1학년 다문화 청소년들은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차패널 조사 대상자인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1,325명이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1기 데이터(MAPS 1)」의 원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은 MAPS에서 기술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1)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신영과 그의 동료들(2006)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3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이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스트레스이다(Berry et al., 1987).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Hovey와 King(1996)의 SAFE(Scale for Adolescents)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노충래(2000)의 문항을 재수정하여 사용한 홍진주(2004)의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른 사람이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외국인 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한 문항은 긍정문항으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3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1’, ‘문화적응 스트레스2’, ‘문화적응 스트레스3’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72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1)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Block와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역한 것으로 수정·보완한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활용하였다.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2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자아탄력성1’, ‘자아탄력성2’로 각각 명명하였다.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2)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은 민병수(1991)가 개발하고 정화실(2009, 재인용)이 수정·보완한 김지경(2010)의 학교적응 척도 중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변인은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교우관계 1문항, 학습활동 1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역코딩하였다. 응답범주는 Likert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시 영역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교사관계가 .89, 교우관계가 .60, 학습활동이 .77로 측정되었다. 교우관계의 신뢰도 지수가 다른 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교사관계, 학습활동 등 나머지 두 변수의 신뢰도가 높고 학교적응의 하위 세 변수를 포함하는 종합신뢰도는 .87로 높게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성별, 거주지역, 모 학력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는 상황·배경적 맥락요인을 통계적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는 스트레스 과정 전반에 걸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하는데 주로 교육, 직업, 경제적 수준,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정보가 포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연보라, 2017; 윤경미, 2018; 이봉주 외, 2013)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남자=1, 여자=2),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인 거주지역(서울=1, 경인=2, 충청 및 강원권=3, 경상권=4, 전라 및 제주권=5), 모 학력(중졸 이하=1, 고졸=2, 대학(2~3년제 졸업)=3, 대학(4년제 졸업)=4, 대학원졸업(석박사 포함)=5)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6.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자료를 정리 및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점검하기 위해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셋째, 측정모형을 토대로 잠재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다중매개효과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해 모형을 변형한 뒤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의 4차년도 자료 중 미응답자를 제외한 총 1,325명의 외국 출신 어머니를 둔 중학교 1학년인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648명(48.9%), 여학생 677명(51.1%)이었다. 거주지역으로는 경인(경기도+인천) 340명(25.7%), 경상권 310명(23.4%), 전라 및 제주권 286명(21.6%), 충청 및 강원권 258명(19.5%), 서울 131명(9.9%) 순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은 고졸 618명(46.6%), 대학(2~3년제 졸업) 344명(26.0%), 대학교(4년제 졸업) 205명(15.5%)이 가장 많았다. 모 출신국은 일본 469명(35.4%), 필리핀 344명(26.0%), 중국(조선족) 259명(19.5%)이 가장 많았으며, 부 출신국으로는 한국이 95.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325)

배경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배경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648	48.9	거주 지역	서울	131	9.9
	여	677	51.1		경인(경기도+인천)	340	25.7
부 출신국	한국	1,263	95.3		충청 및 강원권	258	19.5
	결측	62	4.7		경상권	310	23.4
모 출신국	일본	469	35.4		전라 및 제주권	286	21.6
	필리핀	344	26.0		중졸 이하	150	11.3
	중국(조선족)	259	19.5		고졸	618	46.6
	중국(한족, 기타민족)	95	7.2	대학(2~3년제 졸업)	344	26.0	
	태국	52	3.9	대학교(4년제 졸업)	205	15.5	
	베트남	34	2.6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8	0.6	
	기타	72	5.4	모 학력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모형 검증을 위해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각 변수의 왜도(-0.36~1.38)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으며, 첨도(-0.14~1.99)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아 각각 정규분포성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Kline, 2015), 최대우도법을 통한 추정
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다음으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분석 결과 주요
변수 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9 이하의 값을
보이므로 다중공선성으로 의심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1	2	3	4
평균	1.38	3.06	3.06	3.22
표준편차	0.32	0.47	0.41	0.59
최솟값	1.00	1.40	1.70	1.00
최댓값	3.20	4.00	4.00	4.00
왜도	1.38	0.23	0.13	-0.36
첨도	1.99	-0.05	-0.14	0.10
1 문화적응 스트레스	1			
2 자아탄력성	-.23**	1		
3 학교적응	-.31**	.64**	1	
4 삶의 만족도	-.31**	.57**	.56**	1

* $p < .05$, ** $p < .01$, *** $p < .001$

3. 측정모형 분석

먼저, 잠재변인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chi^2=186.81(38)$, $p=.00$ 으로 통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과 간명성을 고려하여 *CFI*, *TLI*, *RMSEA*의 적합도를 함께 고려한 결과 *CFI*=.98, *TLI*=.97, *RMSEA*=.05로 나타났다. 즉,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chi^2(df)$	p	<i>CFI</i>	<i>TLI</i>	<i>RMSEA</i>
186.81 (38)	.00	.98	.97	.05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각 측정변인의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Estimate		S.E.	C.R.
		B	β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1	1.00	.70	-	-
	문화적응 스트레스2	1.55	.92	.11	14.16 ***
	문화적응 스트레스3	.63	.22	.09	7.28 ***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1	1.00	.94	-	-
	자아탄력성2	1.01	.81	.03	33.91 ***
학교적응	교사관계	1.00	.66	-	-
	교우관계	.88	.80	.05	23.28 ***
	학습활동	.96	.68	.05	20.58 ***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1	1.00	.89	-	-
	삶의 만족도2	1.04	.71	.03	30.38 ***
	삶의 만족도3	1.12	.92	.03	43.67 ***

* $p < .05$, ** $p < .01$, *** $p < .001$

4. 구조모형 분석

다음으로 주요 변수 간의 경로에 대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5와 같이 $\chi^2=232.90(65)$, $CFI=.97$, $TLI=.97$, $RMSEA=.04$ 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chi^2(df)$	p	CFI	TLI	RMSEA
232.90 (65)	.00	.97	.97	.04

경로계수를 통해 각 변수 간의 영향을 표 6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beta=-.26$, $p<.001$), 학교적응($\beta=-.20$, $p<.001$)과 삶의 만족도($\beta=-.11$, $p<.001$) 모두에 부정(-)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beta=.77$, $p<.001$), 삶의 만족도($\beta=.22$, $p<.001$)에 정적(+)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6, p<.001$),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E.	C.R.
	B	β		
문화적응 스트레스 → 자아탄력성	-0.76	-0.26	.14	-5.58 ***
문화적응 스트레스 → 학교적응	-0.49	-0.20	.09	-5.45 ***
문화적응 스트레스 → 삶의 만족도	-0.39	-0.11	.11	-3.37 ***
자아탄력성 → 학교적응	.63	.77	.03	20.93 ***
자아탄력성 → 삶의 만족도	.26	.22	.07	3.73 ***
학교적응 → 삶의 만족도	.68	.46	.10	6.83 ***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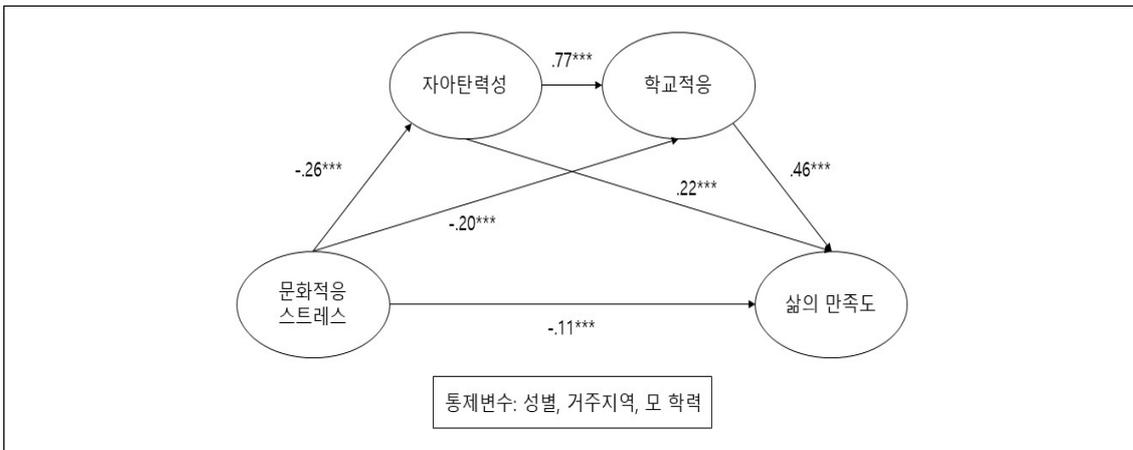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검증결과

5. 매개효과 검증

다중매개모형의 경우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은 설정된 매개변수 전체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각 경로별 매개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다(배병렬, 2014). 따라서 설정된 각 경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생성하여 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팬텀변수는 모형적합도나 각종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만든

가상의 변수이다. 분석결과 표 7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44~-.05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역시 -.56~-.21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직렬다중매개효과 역시 95% 신뢰구간에서 -.27~-.04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직렬다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사이에서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은 개별매개효과뿐만 아니라 직렬다중매개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다중매개효과 분석

경로		Estimate	S.E.	95% 신뢰구간
문화적응 스트레스 →	자아탄력성 → 삶의 만족도	-.20	.09	-.44 ~ -.05**
문화적응 스트레스 →	학교적응 → 삶의 만족도	-.33	.09	-.56 ~ -.21**
문화적응 스트레스 →	자아탄력성 → 학교적응 → 삶의 만족도	-.13	.06	-.27 ~ -.04**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스트레스 과정 모델(SPM)의 관점을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직렬다중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이 자기 삶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영아 외(2018)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다문화 청소년도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경험 지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낮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김민주와 윤기봉(2018)의 연구결과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과 타 문화 간, 즉 이중문화의 충돌로 인하여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문화 청소년이 인지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중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김민주와 윤기봉(2018)의 연구결과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감소시키고, 손상된 탄력성이 곧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자아탄력성은 개인이 타고나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하고 영향을 받는다(Dyer & McGuinness, 1996). 다수의 자아탄력성 관련 연구들은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정의하고 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논하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같은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적응능력을 크게 요구하는 발달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작용효과가 크다고 하였다(안혜진, 2019). 따라서 중학교 입학과 적응이라는 새로운 발달과업에 직면해야 하는 중학교 1학년 다문화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의 내적 능력인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적응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학 초등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김사다 외, 2017). 이는 다문화 청소년에게 학교생활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학교에서의 학업과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그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다문화 청소년이 삶의 만족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교 환경에서의 적응을 촉진시켜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넷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간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다시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적응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이 삶의 만족도 향상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직접 개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향상이 삶의 만족도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중재가 교사 및 교우관계, 학습활동과 같은 학교에서의 적응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개입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청소년기 발달 단계상의 스트레스와 더불어 차별, 사회적 편견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그 자체보다 당면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Thoits, 1995). 이때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일반적 능력 중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있다(Masten, 2014). 자아탄력성이 낮은 경우,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인식하여 자기 삶을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 증진의 효과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강영미, 신원섭, 이상주, 2019; 김경수, 최지영, 2018). 이처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합한 조절전략의 구사를 통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청소년기에 겪는 스트레스 및 발달상의 위기를 이겨내는 자원이 되어 이들이 직면하는 일상 속 다양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고 긍정적인 발달 및 성장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구현영 외, 2006).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업중단의 이유를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3.4%로 2015년 실태조사 시 1.3%에 불과했던 응답 항목이 본 조사에서는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교요인 중 다른 학교생활과 문화(9.1%), 어려운 학교공부(8.4%), 서툰 한국어(4.9%) 등과 같은 요인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유로 나타났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가 63.6%로 가장 많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53.5%)

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교사의 차별대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7.3%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학업수행과 교우 및 교사관계가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는 바이며, 이러한 측면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 내에서도 중도입국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학업중단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혜숙, 박미현, 2016), 이는 서툰 한국어 구사능력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 적응에 중요한 변수이고, 스트레스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이주배경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사회복지 차원에서 학생들의 또래 및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 학습활동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상담과 지도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청소년의 발달을 위해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 개개인의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나아가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조기 식별,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적응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심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2021)에서는 범교과 학습주제로 ‘다문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해 연간 2시간 이상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조기 학교적응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학교급 전환기 다문화 학생을 위한 준비교육인 ‘징검다리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다문화 교육이 수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다문화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 따돌림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교내 모든 구성원이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학교에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특히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또래의 차별과 편견 방지 및 상호문화교육, 교사의 다문화적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이 구축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위협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강점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정책 및 지원이 시행되어야 한다. 최근 다문화 청소년에 관한 긍정적인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단일언어만 사용하는 청소년보다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청소년이 언어 분야의 학업성취가 높았고(박혜량, 김현철, 2016), 문화에 대한 다름을 이해하여 긍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순희, 2009). 현재 교육부(2021)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 강점 개발을 위해 전자책 형태의 이중언어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민·관·학이 협업하여 국내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이 가진 특성 및 강점을 활용하는 정책 및 서비스 지원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다문화 청소년의 강점 개발 및 지원,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과정 모델 및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리·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과 청소년기 주요 외부환경요인인 학교적응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 관계에서 직렬다중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음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만 본 연구에 포함한 횡단연구로,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을 포함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지 못하여 각 변수 간의 인과관계 해석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초·중·고 전 학령기가 포함되어 시간의 변화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치는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다문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주 배경에 따른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출생 다문화 청소년은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보다 우울 수준이 낮고(송영호, 최영미, 2019), 국내에서 태어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외국계 부모님 나라의 언어보다 한국어에 능통하며 청소년기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다문화 청소년을 한 집단으로 ‘집단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본 패널에서 의미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국내출생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집단이고, 조사대상 대부분이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이기 때문에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치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환경 및 특성에 따라 국내출생 다문화 청소년과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맞게 측정 문항을 제작하여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정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명희, 이수연 (201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6), 265-293.
- 강영미, 신원섭, 이상주 (2019). 숲 체험 미술활동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2(2), 111-130. doi:10.14328/mes.2019.6.30.111
- 강화, 배은경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2, 131-164. doi:10.24300/JKSC.2018.06.62.131
- 곽미정, 구성숙, 김형모 (2015). 다문화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로하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133-161. doi:10.18398/kjlgas.2016.30.3.355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 **2021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 (2021).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기획보장과.
- 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151-158. doi:10.4040/jkan.2006.36.1.151
-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의 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경민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5(1), 40-74.
- 김경수, 최지영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임상미술심리연구**, 8(3), 101-128. doi:10.34167/cliart.8.3.201812.101
- 김기년, 탁진국 (2018). 한국 청소년의 연령 차이와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25(7), 119-143. doi:10.21509/kjys.2018.07.25.7.119
- 김민주, 윤기봉 (2018).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373-388. doi:10.21097/ksw.2018.02.13.1.373
- 김사다, 조봉환, 박미진 (2017). 세종특별자치시 전학 초등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6(4), 481-493. doi:10.28972/kjec.2017.16.4.481
- 김소영, 윤기봉 (2016).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271-296. doi:10.14816/sky.2016.27.2.271

-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I: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연구보고 06-R0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애경, 김성봉 (2018).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5(10), 273-297. doi:10.21509/kjys.2018.10.25.10.273
- 김연화 (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87-307.
- 김영민, 임영식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김은경, 김종남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응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연구**, 9(4), 21-43. doi:10.14328/mes.2016.12.31.21
- 김은혜, Cui Lina, 노충래 (2019).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가족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다집단분석. **한국아동복지학**, 68, 87-114. doi:10.24300/jkscw.2019.12.68.87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평화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정 (2000).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 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청소년의 심리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1), 107-135.
- 류방관, 김경애, 이재분, 송혜정, 강일국, 유지명 (2012). **중등교육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보고 RR-2012-0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하영, 권기남 (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 박동진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2), 57-74.
- 박순희 (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 125-146.

- 박주희, 남지숙 (2010).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21(2), 129-152.
- 박혜량, 김현철 (2016). 다문화가정의 사용언어가 자녀의 언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4(4), 165-194.
- 박희훈, 오성배 (201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2(2), 35-57.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서은주 (2021).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연구: 생태 체계모델과 위계적다중회귀분석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3), 179-202. doi:10.30974/kaice.2021.10.3.8
- 서진희 (2012).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비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 송영호, 최영미 (201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이중언어적응, 사회정체성과 우울. **다문화와 평화**, 13(1), 77-96.
-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3(1), 81-92.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doi:10.7466/JKHMA.2013.31.2.077
- 안혜진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9(12), 789-807. doi:10.22251/jlcci.2019.19.12.789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9-01).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보라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V: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연구보고 17-R12-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염유식, 성기호 (2021). **2021년 제12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61-180.
- 유안진, 이점숙, 이정민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유영아, 김은하, 김성수 (2018).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비교. **한국웰니스학회**, 13(3), 305-319. doi:10.21097/ksw.2018.08.13.3.305
- 유조안,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민상, 박호준, 오수미, 이신혜, 이아영, 차은호 (2021).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V**.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윤경미 (2018). 거주 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사회과학리뷰**, 3, 69-90. doi:10.48033/jss.3.65
- 은선민, 이수현, 이강이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궤적 유형화: 유형 예측요인과 유형별 심리·사회적응. **한국청소년연구**, 30(2), 177-211. doi:10.14816/sky.2019.30.2.177
- 이병철, 송다영 (2011).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4), 131-154. doi:10.20970/kasw.2011.63.4.006
- 이솔잎, 김유식, 심상신 (2013). 여가스포츠 참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7(4), 57-72.
- 이수민, 양난미, 이아라 (2021).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5), 776-793. doi:10.5392/JKCA.2021.21.05.776
- 이수연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조기유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6, 45-62.
- 이은희, 옥경희 (2012). 결혼이민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 17(2), 197-215.
- 이종우 (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자아정체성 및 학교적응의 상관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연, 그레이스정 (2016).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6(3), 336-362. doi:10.15709/hswr.2016.36.3.336
- 이혜숙, 박미현 (2016).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장선아, 고정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사회적 지지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 662-673. doi:10.5392/JKCA.2021.21.01.662

- 정화실 (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형정, 윤지영 (2015). 초등 고학년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4(1), 157-187.
- 진은영 (2015).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응과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역량의 매개효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2, 303-326. doi:10.20993/ssw.32.12
- 진혜민, 배성우 (2016). 청소년 자살생각에 관한 메타경로분석: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8(2), 85-113. doi:10.19034/kayw.2016.18.2.05
- 최성보, 이현철, 김경식 (201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348-369.
- 한광현, 강상경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수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스트레스 과정 모델 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7(1), 231-257. doi:10.24301/mhsw.2019.03.47.1.231
- 허은주, 오인수 (2014).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심리욕구와 희망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5(3), 137-165. doi:10.15854/jes.2014.09.45.3.137
- 홍진승, 이영선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직렬이중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7(2), 289-309. doi:10.24159/joec.2021.27.2.289
- 홍진주 (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doi:10.2307/2546607
- Block, J. H., & Block, J. (2014).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pp. 49-112). New York: Psychology Press. doi:10.4324/9781315803029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doi:10.1037/1082-989x.1.1.16
- de Snyder, V. N. S. (1987). Factors associated with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married Mexican immigrant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1(4), 475-488. doi:10.1111/j.1471-6402.1987.tb00919.x

- Dyer, J. G., & McGuinness, T. M. (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5), 276-282. doi:10.1016/s0883-9417(96)80036-7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 doi:10.1037/0022-3514.88.1.158
- Kiang, L., & Fuligni, A. J. (2009). Ethnic identity and family processes among adolescents from Latin American, Asian, and European backgrou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2), 228-241. doi:10.1007/s10964-008-9353-0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doi:10.1111/1467-8624.00164
- Lyons, M. D., Huebner, E. S., Hills, K. J., & Van Horn, M. L. (2013). Mechanisms of change in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5), 587-598. doi:10.1016/j.jsp.2013.07.001
- Masten, A. S. (2014). Global perspectives on resilience in children and youth. *Child Development, 85*(1), 6-20. doi:10.1111/cdev.12205
- McKnight, C. G., Huebner, E. S., & Suldo, S. (2002). Relationships among stressful life events, temperament, problem behavior, and global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6), 677-687. doi:10.1002/pits.10062
- Negru, O., & Baban, A. (2009). Positive development in school settings: School environment influences on perceived school adjustment in a Romanian adolescent sample. *Cognitie, Creier, Comportament/Cognition, Brain, Behavior, 13*(3), 253-267.
- Pearlin, L.I. (1999). The Stress Process Revisited. In Aneshensel, C.S., Phelan, J.C.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Handbooks of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pp. 395-415). Springer, Boston, MA. doi:10.1007/0-387-36223-1_19
- Pearlin, L. I., Mullan, J. T., Semple, S. J., & Skaff, M. M. (1990). Caregiving and the stress process: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heir measures. *The gerontologist, 30*(5), 583-594. doi:10.1093/geront/30.5.583

- Pearlin, L. I.,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7-356. doi:10.2307/2136676
- Proctor, C. L., Linley, P. A., & Maltby, J.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83-630. doi:10.1007/s10902-008-9110-9
- Thoits, P. 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53-79. doi:10.2307/2626957
- Ward, C., & Kennedy, A. (1993).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A comparison of secondary students overseas and at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8(2), 129-147. doi:10.1080/00207599308247181
- Wentzel, K. R. (2003). School adjustment. In W. M. Reynolds & G. E. Mill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Educational psychology*, Vol. 7, (pp. 235-258). John Wiley & Sons Inc. doi:10.1002/0471264385.wei0711

ABSTRACT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on life satisfaction amongst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double-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Cui, Lina** · Nho, Choong Rai***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st multicultural adolescents.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e used data from the 4th wav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1),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participants comprised 1,325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ir 1st year of middle school.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ulturative stress had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mongst multicultural adolescents. Second, multicultural adolescent's ego-resilience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Third,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Finally, ego-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had a doubl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results such as these, this study is able to advance several suggestions which can be used to improve multicultural adolescents'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while reducing acculturative stress.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acculturative stress, life satisfaction,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MAPS 1

* This study is based on the Master's thesis(2020) of the first author and It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4th BK 21,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drno@ewha.ac.kr